

# 2002년 경제흐름과 시사점



沈 永 燮

(산업연구원 先任研究委員)

얼마 전에 IMF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금년에 4%에 달할 것이라고 상향조정해서 발표하였다. 다소 보수적인 전망으로 일관하는 IMF의 예측치가 마야흐로 4%를 넘어선 것이다. 비단 IMF뿐만이 아니다. 국내 전망기관은 물론이고 해외의 우수한 금융기관들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금년도 예상성장률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해 말까지만 해도 대부분 3%대에 머물던 해외금융기관들의 예상성장률이 최근에는 전망기관에 따라 5.5%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불황의 터널을 경기회복을 고대하던 기업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기회복의 전망이 가뭄에 단비 만나 듯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문제는 경기의 상승국면이 확실하냐는 것 못지 않게 경기상승세가 얼마나 강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추세가 안정적인 것이냐 하는 데에 있다.

## 1. 2002년 경기의 추세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경기가 지난 해 4/4분기부터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소비심리와 기업체감경기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내수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

### ■ 目 次 ■

1. 2002년 경기의 추세
2. 해외 경기의 추이
3. 경제전망의 독해법
4. 주류업 경영에의 시사점

한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

경기회복의 신호는 소비자로부터 나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한껏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자동차와 TV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백화점의 매출이 크게 신장하였고, 서비스업의 회복세도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소비심리의 개선과 서비스업의 회복세는 기업의 체감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11 테러 사태 이후 곤두박질 치던 산업생산이 11월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하여 연속 플러스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실물부문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었던 반도체도 가격상승과 함께 생산이 확대되면서 급속하게 부진에서 벗어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기업경기심리(BSI)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조만간 부진의 늪에 빠져 있던 기업의 설비투자가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 소비와 생산활동만을 고려한다면 이미 지난 해 하반기 들어서 회복을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었다. 약화일로를 걷던 제조업 생산의 부진현상이 2001년 7월을 고비로 둔화되면서 개선되어 가는가 했는데, 불의의 테러사태가 경기의 회복을 후퇴시키고 만 것이다. 그나마 4/4분기에 경기의 회복이 다시 시작된 것은 일반의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사이클로 볼 때, 우리 경제는 2000년 3/4분기 이후 1년 정도의 경기하강세를 보이다가 2001년 3/4분기를 고비로 다시 상승세로 바뀐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루어진 경제성장률이 2001년 3/4분기에 1.8%를 기록하면서 저점을 친 후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4/4분기에 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된다.

2002년의 국내경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망은 연간 성장률 4~5% 정도의 완만한 회복세(mild recovery)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장 전망치도 그 동안 실물경제의 흐름에 따라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온 것이다.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내다보는 이유는 경기상승을 주도하는 소비와 투자의 흐름이 아직은 불안정하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경기를 지탱하여 온 소비의 회복세가 금년에는 예상만큼 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것에 비례하여 가구당 가계신용잔액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소비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가계 빚이 동반되는 한 소비의 증가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 해의 감소세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투자계획 축소 등 보수적인 경영 움직임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무래도 잠재성장률이라 할 수 있는 5% 수준을 밑도는 저성장 전망이 주류를 이루는 한 경영환경은 불투명한 상태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패턴은 보수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설비투자의 내용도 단순한 설비의 확충보다는 신제품 생산, 자동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고 건설경기에 큰 기대를 걸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소비 및 경기회복의 기세에 편승하여 부동산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일 정도로 되살아나고 있는 있으나, 추세적으로 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유동

성 과잉에 저금리, 건설경기대책, 분양권 전매 등 투기적 수요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장기간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출은 또 다른 변수이나, 비교적 낙관적인 편이다. 금년에는 해외경기의 상승으로 수출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종 수출상품의 가격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데에 힘입어 수출이 지난 해의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엔저와 같은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금년 전체로 지난 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수입확대→자원활용의 효율성 증대→산업발전→수출증대 및 수입능력의 제고라는 무역확대의 선순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또 한편으로 수출감소→자본재 부품수입 및 설비투자 감소→산업의 경쟁력 저하→수출감소 및 수입능력 감축이라는 무역축소의 악순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수출확대가 성장과 수입능력의 확대, 그리고 다시 수출의 확대라는 무역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발생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빠른 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수출이 어려워지면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경제 전체가 순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해와 같이 수출감소에 의한 경기위축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금년처럼 수출호조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만큼 경기가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예상대로 수출이 상반기 중반의 시점부터 활기를 띠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성장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년도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보다는 좀더 강한 상승세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싶다.

## 2. 해외 경기의 추이

문제는 해외 경기가 얼마나 활발하게 수출수요를 끌어주느냐에 달려있다.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경기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경제의 향후 움직임이 관건이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전망기관들은 미국경제가 이미 경기침체의 터널을 지나 의미 코너를 돌아섰으며,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미기업경제학회(NABE)의 하비 로젠블럼 회장의 말대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호황 뒤에 나타난 경기침체가 역사상 가장 짧고 온화하게 끝나가고 있는 중이다. 미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회복된다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연평균 3.5~4%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경기의 강한 회복세를 내다보는 견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모건스탠리, 골드먼삭스, 리먼브러더스, 웰스파고 등 미국의 유력 금융회사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금년 1/4분기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상이 적중한다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하여도 이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금년도 1/4분기 GDP 성장률이 0.2% 수준에 그쳐,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 면할 것으로 내다 본 내용과 비교해 보면 천양

지차가 있다. 전문가들이나 전망기관의 예측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면, 이는 경기의 강하고도 뚜렷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민간경제조사기구인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는 최근 3~6개월 이후의 경기를 가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해 10월 이래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난 1991년의 경우에도 미국경제는 5개월 동안 경기선행지수의 상승과정을 거쳐서 그 해 4/4분기의 GDP 성장률이 2.2%, 다음 해 1/4분기의 성장률이 3.8% 각각 성장하면서 장기간의 침체터널에서 벗어난 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주효했고,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과 테러사태 이후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미국경제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왕성한 소비심리와 낮은 실업률이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이끌어 갈 것이다. 사실 지난 1여년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집중적인 경기회복 노력을 감안해 볼 때 경기의 완만한 회복전망은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일 수도 있다.

한편 우리의 또 다른 주요 교역상대국인 일본경제는 미국경제와는 달리 침체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투자와 소비위축이 자산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것이 다시 금융기관과 기업의 수익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위기를 예고하기도 한다. 향후 일본경제의 회복은 고이즈미정권의 경제개혁과 부실채권 처리를 포함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 그리고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회복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3. 경제전망의 독해법

어쨌든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경제의 움직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전망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분명 희소식이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성장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없이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찌해서 전망기관들이 경제예측을 자주 수정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제예측이나 전망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경제이론의 목적은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경제현상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경제현상들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assumption)을 세우고, 모형(model)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test)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대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경제예측은 필수적이다. 전망과 예측이 부정확하면 대책과 전략이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전망기관들의 예측은 정확도가 그리 높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못한 전망과 예측의 추세가 전망기관간에 서로 비슷하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나간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극적으로 살아난 1999년의 경우가 경제예측이 완전히 틀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9년에 실현된 10.2%의 성장률에 근접한 예측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실적을 따라가는 전망으로 일관하였다. 적어도 1999년 상반기까

지는 경기의 강한 회복세를 예측한 기관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상반기까지만 하여도 정부 당국과 민간 및 정부연구기관에서 경기부양을 검토했을 정도로 경기동향분석과 전망이 엉터리였다. 초기에는 경기반등의 예측에도 실패하였다. 1998년 8월경 산업연구원이 1999년의 성장률을 플러스 2%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자, 대부분의 전망기관에서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코웃음칠 정도였다. IMF를 비롯한 대다수의 전망기관이 199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단지 경기하락세가 1998년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던 때의 일이다.

경제예측이 이처럼 틀려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망기관간의 공범론이다. 경제전망의 한계를 익히 알고 있는 전망기관들이 전망의 오차에 따른 책임을 나누기 위해 다른 전망기관과 비슷한 추세로 전망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둘째, 아무리 이론과 예측모형이 정교해도 경기추세의 반전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망자들이 대부분 같은 추세 속에서 경기 둔화 또는 가속 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에는 예측이 어려움을 겪곤 한다. 셋째 단기적인 경기의 흐름을 지나치게 교과서적으로 해석한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교과서적으로 내세우는 가설은 합리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으나, 경제이론이 예측하는데 동원된 합리적 기대와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성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경기예측이나 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독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전망기관의 입장을 생각해서 전망 내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정부나 정부출연기관의 전망치는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경기전망 자체가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오이디푸스 효과를 우려하는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기가 부진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으면 기업들이 이에 맞추어 설비투자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던 경기부진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연구기관들은 대부분 경기예측이 낙관적이면 정부가 재정 및 금융긴축으로 대응할까 하는 우려와 경기부양의 기대감 속에서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해외 금융기관들의 전망 내용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둘째, 경기에 대한 예측은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각 변수에 대한 예측과 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변수파악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각 변수마다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성장률 등의 전망치가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근사치로 접근한 경우라도 전망 모형에서의 변수에 대한 예상이 실제 상황과 크게 어긋나 있다면 전망이 정확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전망치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에 설정한 변수 이외의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이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경제현상은 이론적으로 모형화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기보다는 심리적, 사회적,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얽히고 설힌 복잡한 인과관계의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델에 의한 전망치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실물경제 동향을 주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

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모형에 의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성적인 분석에 의해 예측이나 전망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기업실사 또는 시장조사 등과 같은 서베이를 통하여 실물경제동향을 파악하거나 경제주체들의 행위(behavior)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경기예측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했다면 실물경기를 주의 깊게 파악하려는 노력 덕분이다.

넷째, 경기전망의 모형은 대부분 과거의 현상들을 근거로 인과관계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하였거나 과학기술의 발전 등과 같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모형의 결과에 반영되기 어렵다. 1990년대 초반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발발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의 오일쇼크를 연상하여 유가인상을 예측하였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고 말았다.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게 전개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시장참가자들의 행위(behavior)는 과거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다섯째, 경기전망은 경제가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에 상대적으로 정확하므로,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가 어떠한가를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1992년 이래 2년간의 불황을 벗어나 1994년부터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였을 때, 정부와 전망기관들이 경기의 정점도달이 과연 언제쯤일 것인가를 두고 1995년부터 무려 2년간 논란을 벌인 일이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비교해 보면, 1995년 4, 5월 경의 신문보도 내용과 1996년 4, 5월 경의 신문보도 내용이 거의 비

슷할 정도로 같은 경기사이클 관련 기사로 채워져 있었다. 당시 우리 경제의 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언제 기울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있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외환위기 이후에 진행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노력 덕분에 이러한 불안감을 많이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그 동안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실기업의 처리가 가닥이 잡힌 것이 지난 연말 이래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경제흐름의 장래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이 내포된 낙관론인 것이라고도 해석된다.

#### 4. 주류업 경영에의 시사점

2002년의 대내외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편이다. 물론 경기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회복의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경기의 탄력성과 선순환 과정 진입, 반도체 가격의 상승, 유가 안정세 등이 경기회복의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에 금년에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일정, 엔저 현상과 일본경제의 불안정 등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상승의 추세를 역류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보다는 보다 강한 상승세를 예측하고 싶다.

이제 이러한 경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주류업계의 경영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자.

경기의 상승세 반전은 일단 주류업계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비내구소비재인 주류제

품은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보다 소득탄력성이 높은 편이므로,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 전반적으로 주류소비가 늘어가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야 기호상품인 술을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마련일 것이다. 저가의 주류제품보다는 고가의 주류제품의 소비가 경기에 더 민감하고, 같은 주종에서도 차별화된 고가의 제품이 경기에 더 민감하다.

경기의 호황기에는 소비가 늘기 마련이므로 업계에서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종간의 경쟁은 물론이고 같은 주종 내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비단 주류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업계마다 전면경쟁(Head to Head Competition)의 양상이다. 말하자면 업계 내에서 특정 상품군에 특화하지 않고 경쟁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경쟁의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 것이다. 주류업계에서도 이미 주류업종의 경계를 넘어서 소주 맥주, 양주, 과일주, 전통양주 등 경쟁기업간에 전 품목을 대상으로 종합주류회사의 판도로 경쟁을 하고 있다.

전면경쟁의 승부는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나곤 한다. 아무래도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에 따라 명암이 갈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기업들이 단순한 설비의 확충보다 신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투자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주류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산업발전단계상 성숙산업이자 성장산업의 두 가지 특성을 다함께 지니고 있다. 소주, 맥주, 위스키의 3대 주류가 여전히 국내시장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주류산업은 분명히 성숙산업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와 이태리 등지에서 포도

주의 급격한 소비감소세와 수출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주류업종이 성숙산업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이제는 성숙산업인 포도주산업의 정체를 우려하여 개혁론이 제기될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하지도 않다. 최근 민속주의 부상과 기존의 주종 주류의 다양화·고급화가 진행됨에 따라 차별화된 틈새시장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주류산업은 성장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질 좋은 주류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만, 생산자와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쟁의 폭이 심화되는 것이다.

주류산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물론 주류제품의 수출이 지난 1999년에 1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이후 매년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이처럼 주류산업이 비록 내수산업이라 할 지라도 세계화와 개방화의 대세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미 국내 주류시장은 모든 주류에 대해서 내·외국인에게 차별없이 판매 및 수입면허를 개방하고 있다. 제조면허의 경우에도 소주에 대한 합작의무의 폐지 등 주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어 있고 소규모 맥주제조회사(Mini Brewery)도 일정에 따라 조만간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주류업은 이제 개방된 내수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어 기업경영의 환경이 개선되면 될수록 외국 주류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수시장을 둘러싸고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